

은혜와 기적의 현장을 찾아온 이들

'2018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한 해외 6개국 농아 성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고 응답받은 행복한 소식.

화평의 지혜

위로부터 난 화평의 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반짝반짝 너울너울 예쁜 잠자리~”

사모함으로 '2018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한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신기한 잠자리 체험.

불치, 난치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식이 없던 딸이 깨어나 회복되고 있는 박강림 성도와 시공을 초월해 유전병이 치료된 인도 임릿 쿠마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852호 2018년 8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불을 받은 후, 소리가 들립니다!”

말레이시아, 독일 등 해외 6개국에서 참석한 농아 성도들



만민하게수련회는 각종 기사와 표적, 살아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으로 해마다 수많은 해외 성도가 참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농아들의 귀가 열려 듣게 되는 등 성경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시공을 초월하여 증명함으로 매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2018 만민하게수련회'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 라트비아, 페로제도, 덴마크에서 농아 28명이 참석해 24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첫째 날 저녁 교육 시 강사 이수진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단에서 전체 기도를 해주었다. 탄야 델 보치오 성도(여, 47, 독일)는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오른쪽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소리만 들을 수 있었던 키티탕 강 카왕 형제(남, 16, 태국)는 정확히 문장 전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탕 키에빈 성도(여, 31, 말레이시아)도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교육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뒤 일행이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귀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아 성도 대부분은 수년간 수련회에 참석함으로 청력이 계속하여 꾸준히 좋

아지고 있다. 지레 다히 성도(여, 61, 덴마크)와 지정훈 목사(남, 52, 말레이시아)는 기도받고 양쪽 귀가 간지러운 느낌이 든 뒤 더 잘 들리게 되었으며, 인터넷 동시수화통역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기도받은 호사우홍 성도(여, 56, 말레이시아)는 온몸이 뜨거워지고 양쪽 귀에서 간지러운 느낌이 든 뒤 잘 들리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라우리스 루란스 성도(남, 32, 라트비아)는 작년 수련회 때 오른쪽 귀가 열렸는데, 왼쪽 귀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한 결과, 올해 기도를 받을 때 왼쪽 귀까지 열리는 축복을 받

았다. 리우 카르 렉 형제(남, 24, 말레이시아)는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왼쪽 귀가 잘 들리고 오른쪽 귀도 약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귀가 잘 들리게 되었고 왼쪽 귀도 더 잘 들리게 되었다.

이 외에도 베아테 가이셀소더 성도(여, 49, 독일), 메이프리아 한센 성도(여, 41, 페로제도), 마헨드란 성도(남, 43, 페로제도), 엘비스 형제(남, 23, 라트비아), 인가마우리나 주르크자네 성도(여, 31, 라트비아), 아신통 강 카왕 형제(남, 21, 태국), 조셉 뱅필림 성도(남, 35, 말레이시아), 리우 카르 폰드 형제(남, 24, 말레이시아) 등 농아 성도들이 수련회를 참석할 때마다 청

력이 점점 회복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듣게 되었다.

한편, 차이랏 지라팻 성도(남, 52, 태국)는 이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왼쪽 귀가 열렸는데 이번 수련회 때 오른쪽 귀까지 열렸고, 시력도 좋아져 안경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며 기뻐하였다.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5)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귀가 열리고 뼈암을 치료받았습니다!” 레베카 바르바라 볼라트 성도 (49세, 독일)

2011년, 목뼈에 암이 생겨 잘 걷지도 못하고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선천성 농아인데 2017년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오른쪽 귀가 열리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기에 올해는 뼈암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매일 기도하며 2018년 만민하게수련회를 간절히 사모해 왔지요.

8월 2일, 한국에 와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작년에 치료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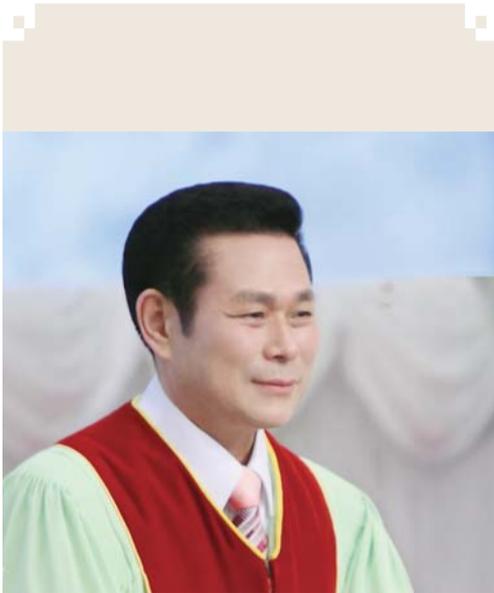
오른쪽 귀가 이전보다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월 6일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전체 기도를 받을 때 뒤쪽에서 불같은 것이 뜨겁게 제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왼쪽 귀도 열려 양쪽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더욱이 뼈암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도 모두 사라져 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평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자라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친 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나 함께 일을 추진하게 되지요. 이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화평이 깨지고 마음 상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업터 등 자신이 속한 분야마다 아름답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화평의 지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화평'의 영적인 의미

사전을 보면 '화평'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함, 서로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간에 불목하거나 사소한 감정 대립, 다툼이 없기를 원하시지요. 따라서 '화평'의 영적인 의미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모든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잘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마음에 선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겉으로는 화평한 것 같아도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교만, 자존심, 불편한 감정 등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죄악과의 싸움을 끝내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부부간에, 자녀, 친구, 동료, 이웃 등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사

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선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만 화평하셨던 것이 아니라 배움과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섬기시니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무 죄없이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2.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지혜'인 이유

1)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겸손하여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여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요.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상대를 무시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광조라는 인물은 왕과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단행하려 했습니다. 그는 소신이 뚜렷하고 열정이 있었기에 왕도 처음에는 그를 힘껏 밀어주었고, 백성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해가니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그를 지지하던 왕조차 외면하고 말았지요.

결국 그는 개혁 정책을 실행해 보지도 못한 채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반대파를 포용했다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또 지식과 확실한 방법론이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도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앞세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형편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 아랫사람이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 심지어는 상사들과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외톨이가 되고, 자칫 능력까지도 무시될 수 있지요.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이룬다면 결과적으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2)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것은 사람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화평이 깨지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주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편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기에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종종 화평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재능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도 있어서 좋지만, 그에게 사명 맡기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일을 맡으면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여러 잡음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주변에서 “저 사람과 일하기 힘들다”며 함께하기를 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가 사명이라도 맡아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김으로 배려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만, 사사건건 부딪치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화평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3.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면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선을 이뤄야 합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들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정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화평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부부간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조건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자신이 상대에게 해 준 만큼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점점 사랑에도 금이 갑니다. 부부뿐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 낮아지고 섬긴다면 화평이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가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쪽을 고집한다면 화평은 깨집니다. 내가 보기에 더 옳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편한 쪽, 내가 드러나는 쪽을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설령 진리를 배워서 안다 해도 마음에 선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결국 말과 행실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쪽을 고집하니 상대를 찢러 상처 주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범사에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한 것을 구하되 더불어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지요. 상대가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설령 내가 더 옳아도 상대가 다른 의견을 주장할 때 굳이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이나 다툼이 없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어떠한 사람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섬김으로 화평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지요. 우리가 화평을 이뤄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고 희생하며 낮아지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부딪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길로 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화평을 이룬다는 이유로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뽕박하는 가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오늘은 예배를 쉬어야겠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상대는 물론 자신조차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과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히 12:14) 했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벤전 3:11) 했으니 성결하고 화평한 지혜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iland



사모함으로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한 태 / 국 / 청 / 년 / 들

올해 만민하게수련회에는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담임 이재원 목사)에서만 27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는데, 그 중 청년이 20명이나 된다. 이들은 영적 성장, 기사와 표적, 권능 체험, 첫사랑 회복,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기 등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와 금식으로 수련회를 준비해 왔다.

더욱이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으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용돈을 아끼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돈을 모아 이를 여청년선교회 회장이 관리해 주는 등 그들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져 결국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사모함이 컸던 만큼 이들은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는데 꿈이 이뤄져 너무 행복했어요”, “수련회를 통해 영육 간에 많이 변화되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시원한 날씨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많은 성도가 치료받는 모습 등을 보면서 믿음이 되었어요”, “잠자리가 제 팔에 날아와 앉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라며 평생 잊지 못할 만민하게수련회의 은혜를 기쁘게 고백했다.





“경련으로 뇌 손상을 입은 딸아이가 권능의 기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박강림 성도 (28세, 구미만민교회)



2018년 3월 초, 갑작스런 경련으로 딸 슬아(3세)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상해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로 경련이 장시간 계속되어 뇌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배회하던 중, 어릴 때 다녔던 구미만민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지요. “하나님,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지옥 가는 게 두려워요!” 하며 한참 울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려는데, 어릴 때 저를 전도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말하게 되었고, 이를 전해들은 학생청년부 전도사님이 다음 날, 병원에 찾아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슬아가 눈을 뜨고 울기도 하며 엄마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아는 일반병실로 옮겨져 이내 퇴원하게 되었지요. 3월 30일 당시, 아이는 오랜 대발작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뇌 손상이 와서 연하곤란으로 평생 코에 관을 끼워서 음식을 주입하며 살아야 하는 상태였고, 재활치료를 한다 해도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물론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아예배 등 각종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다니엘철야와 낮기도회, 별미기도회까지 참석하며 지난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취하며 살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장의 환자기도

를 밤낮으로 아이에게 받게 해 주었지요.

그러던 4월 20일, 문득 아이가 음식을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영양식을 숟가락으로 넣어주자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삼킴검사’를 해보니 정상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울음소리만 나오고 표정이 없었는데 근육이 풀려 울고 웃기도 하고, 팔다리도 유연해지는 등 슬아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경련이 잦을 것이라는 병원측의 소견과는 달리 항경련제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그때와 같은 대발작은 한 번도 없었지요. 지금은 더 좋아져 혼자서 젓병도 빨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8월 초,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시시때때로 슬아를 힘들게 했던 사지강직 증상이 약을 먹이지 않았음에도 완전히 사라졌으며, 저의 부정적인 생

각을 발견해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저 막연히 제 마음속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임을 깨달으며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불치의 유전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암릿 쿠마 성도 (33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6년 전, 갑자기 제 몸이 뻣뻣해지더니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델리에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명도 알 수 없었지요. 이후 의사들은 제 병명을 알고자 여러 검사를 하며 회의하더니 ‘불치의 유전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저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비참해졌습니다.

제 스스로 무엇을 먹을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었고, 몸이 떨리고 몸의 균형도 잃으니 걸을 수도 없었지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몸과 다름없었지요. 심한 우울증까지 걸려 결국 아내는 떠나버렸고, 저는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마해쉬 형제의 전도를 받아 지난 2월부터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우니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하게 되었지요. 제 몸이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니 몸에 점차 힘이 주어져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층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 손과 다리가 부드러워졌고, 조금씩

혼자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만민하계수련회 소식을 듣고 온전히 치료받고자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담임 김상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회장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으며 ‘믿음의 분량’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지요.

지난 8월 6일, 저희 교회에서는 200여 명이 모여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교육 후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기도해 주실 때 누군가 저를 만지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다음 날에는 제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떨림이 현저히 사라져 글쓰기가 가능해졌고, 말이 많이 어눌했는데 발음이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며, 혼자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보통 사람들처럼 수월해졌지요. 할렐루야!

세상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은 몸이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성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